

■ 브루셀라 강제폐기 정책 고수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9월 18일 국회 농해위에서 브루셀라 강제폐기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오는 2013년까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단계적 방역 지표를 설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문제는 감염률 동향을 주시하되 비용이 들더라도 현행 강제폐기(살처분) 정책을 고수, 청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미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전문가·생산자단체·정부관계자간 협의회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안전성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음을 밝히는 한편 한미 FTA 협상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양허안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관계관들과 함께 출석, 여야의원들의 소 브루셀라병 대책과 한미FTA 협상, 그리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소 브루셀라병은 백신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고 청정국 지위를 가져야 수입 축산물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농경연, 수입생우 사육제한 '충격'

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수입 생우 사육을 유도하고 제도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 충격을 주고 있다.

농경연은 지난 9월 14일 '생우 수입의 경제성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가 생우를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수입 생

우 사육이 한우 사육보다 월소득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판매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농가 소득은 한우가 97만7천원으로 수입 생우 68만5천원으로 한우가 높지만 생우 수입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할 때 수입 생우 사육기간이 짧아 월평균 소득은 한우가 5만1천892원인데 비해 수입 생우는 8만2천689원으로 수입 생우가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생우 수입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외래질병 유입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우 수입으로 인한 외래 질병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따라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우 수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한우 농가와 마찰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생우 사육농가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농림부, 가축분뇨 자원화 적극 추진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일환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5개 시·군을 선정해 2007년에 총 20억원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 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 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시·군 선정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농림부, 공동자원화 시설 내년 2개소 시범 설치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일환으로 2007년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가족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규모는 1일 100톤이상 처리하는 곳으로 개소당 25억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스템 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동자원화 시스템 평가결과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2007년 상반기 중에 이 시범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착수되고 퇴·액비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보일 경우 2008년부터 확대보급해 자연순환농업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 배합사료내 총인함량 규제 추진

농림부가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일환으로 배합사료내 총 인의 함량 규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은 지난 9월 18일 경기도 수원 소재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농림부 주최로 열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전국순회 세미나에서 '자연순환농업 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일환으로 배합사료 중 총인함량을 규제하고 구리·아연첨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첨가제 사용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연내 사료공정서 개정을 통해 배합사료내 총 인등총함량을 현행 최소치에서 최대치로 개정하고 적용을 위한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합사료업계로 하여금 구리·아연첨가제 효과와 유사한 대체 첨가제 사용으로 자연순환농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2010년에는 구리·아연에 대한 배합사료내 허용기준도 대폭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포천시홀스타인품평회, 챔피언은 채수덕 씨 '수입 데이터베이스 파머 149호'

포천시는 지난 9월 10일 포천 일고등학교에서 홀스타인품평회를 개최하고 포천 관내 기초등록 이상 유우군 능력검정을 받아온 84마리의 개량수준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일본 홋카이도의 후쿠야 히데토씨는 "수입목장의 소가 체형과 유방의 부착면에서 단연 돋보였다"며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양기원 포천시홀스타인품평회 회장(포천축협 조합장)은 "민관협력으로 실시되는 이번 품평회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개량과 생산효율을 향상시킨 다윗이 돼 골리아이라는 세계시장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동 포천시 홀스타인 검정연합회장은 "포천시

품평회가 어느덧 3회 째에 접어들어 뿌듯하다"고 말한 후 "품평회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젓소 계류장 및 기자재 전시장 설치 등 1회성 경비로 투입되고 있어 실내 품평회장 건립을 통한 지역 품평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본격 가동

농협의 친환경 인증사업이 본격 가동됐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지원부는 지난 4월 10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자연순환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안에 기존의 자연순환팀 외 인증지원팀을 신설했다.

강두승 부장은 "기존의 자연순환팀을 자연순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그 안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담당하는 자원지원팀과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도를 담당하는 인증지원팀을 둬으로써 기능을 대폭 보완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또 "새로 시작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과 지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 '강원축산한마당잔치' 성료

'2006 강원축산한마당잔치'가 축산농가와 소비자 등 5만여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원도와 농협강원지역본부 공동으로 강원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축산인의 화합을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정선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06 강원도 축산한마당잔치'는 도내 18개 시군의 축산물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흥천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평창대관령한우, 하이룩한우와 강원창, 6월의아침, 깊은산맑은돈, 산우리흑돼지 등 브랜드의 시식회와 소포장 판매 등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최고품질의 청정 축산물의 참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개막식에는 이형구 강원도

행정부지사와 전상호 농협강원본부장 등 도내외 기관 단체장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어 연예인 초청 특별공연과 시군 축산인 장기자랑 등이 펼쳐져 인기를 끌었다.

또 체험행사로 당나귀, 토끼, 면양 등 특수가축 전시관이 설치 운영돼 관람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이외도 유치원생의 소 그림그리기, 강원랜드 요림팀의 쇠고기강습회와 시군 홍보관에는 쟁기, 코뚜레 등 재래농기구와 자기 고장의 우수 농축산물을 전시,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미산쇠고기 추석전 국내 유통, 농축산업계 강력반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개소의 적합성을 최종 승인해 추석 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 가운데 농·축산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2차 현지점검을 마치고 7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당 작업장의 위생 및 BSE(광우병) 안전관리가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소를 지난 9월 11일자로 최종 승인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공·운송기간(약 15일)과 국내 도착후 검역·통관기간(약 10일)을 감안할 때 수출작업장 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이후 국내에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행기로 운송해 경우 추석 전에도 국내 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에 대해 농축산단체와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입 추진은 한·미 FTA를 서둘러 추진키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호경 한우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9월 7일 전문가협의회 참석 후 곧바로 퇴장해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는 전문가협

AGRICULTURAL PRODUCTS LIVESTOCK FARMING NEWS

의회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밝혀 중도에 퇴장했다”며 “농림부가 수입재개를 확정할 경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의 선결 조건임을 인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저지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파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FTA 협상을 위해 서둘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하는 만큼 이를 주요 이슈로 부각해 전국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대위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수입을 재개하려 하는 만큼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의 방침을 기다려온 수입업체들은 수입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과 동시에 비행기를 통한 국내 유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입업체들이 비행기까지 동원해 미산 쇠고기의 국내 시판을 서두르는 원인으로서는 수입금지 이후 막혔던 유통선 확보와 함께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수입물량이 많지 않을 것을 대비해 중소규모의 수입업체들과 연계해 물량을 확보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축 후 검역과정에서도 SRM에 해당하는 뼈가 검출시에는 수입중단을, 이외 부분의 뼈가

나올 때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2006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상황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의 명품 브랜드 축산물의 할인판매 및 추석 선물세트 예약 주문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축산관련 단체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태평양홀에서 지난 7일 개막, 9일까지 3일간 열린 ‘2006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는 이 같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선 행사로 남게 됐다.

특히 ‘맛있는 유혹, 행복한 체험’이라는 행사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펼쳐져 참관객들로부터 “추석을 대비해 고급 브랜드육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축산업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행사가 자주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 일환으로 한국동물자원과학회, 축산물브랜드경영체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코엑스 아셈홀 회의실에서 개최된 축산물 안전성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지나치게 세세한 소의 개별 정보 입력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정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또 8일 유통업체 바이어 초청 간담회에서 바이어들은 “여전히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브랜드는 여전히 소비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브랜드간의 통합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 경영체의 한 관계자도 “축산물

브랜드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면서 "브랜드간의 자구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서울우유 CEO 탄생, 이종석 전 휴켄스 대표이사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김재술)은 지난 9월 6일 제 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종석씨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종석 상임이사는 향후 서울우유의 영업 및 생산부문 경영총괄을 맡는 전문경영인(CEO)으로서 활약하게 되며 임기는 4년이다. 조합장은 지도업무를 총괄하며 영업 및 생산부문 인사·예산집행권에 대해 제청권이 있다.

이종석 상임이사는 1943년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으며 농협중앙회 대전충남 본부장 및 비서실장과 남해화학(주) 전무이사, 휴켄스(주)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녹용 유통시장 혼탁

녹용 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실은 지난 9월 3일 2005년 한 해 동안 수입 약재용 녹용의 탈세액이 최소 320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가중돼 이들 녹용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아 녹용의 경우 kg당 국제시세가 최고 300달러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고 이들 녹용에 부과되는 세율이 43.9%로 오래전부터 밀수가 횡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녹용의 실제 유통량 및 판매량, 밀수 규모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수입 신고가에 의존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탈세도 만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북미산 엘크의 국제시세가 kg당 70~80달러에 불과해 제3국에서 이를 러시아산으로 속이거나 러시아산 녹용과 혼합해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상당한 부당 차익을 시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녹용의 원산지별 국제시세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수입 신고서류와 대조하는 등의 서류심사 강화와 녹용 수출국에서의 인증마크 부착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총체버 품종 개발

총체버 전용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축산연구소가 지난 9월 14일 충남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사료용 총체버 재배이용 시범사업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식용버 외에는 총체버 생산을 위한 전용 품종이 없는 만큼 품종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업계가 이처럼 총체버 전용 품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총체버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축산연구소가 수년간 총체버를 재배해 가족에 급여한 결과 비육우의 경우 일당총체와 젖소의 유량이 각각 9%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영양적으로 우수한 옥수수 알곡과 비교해도 성적감소가 2%에 불과하는 등 영양적 가치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버는 보통 10월에 수확하지만 총체버는 9월경이면 수확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리그라스 파종시기(9월)를 앞당길 수 있고 여름에는 총체버, 겨울에는 총체보리를 연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김종근 축산연구소 조사료자원과 박사는 "이번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이 총체버 전용 품종 개발 및 재배법 매뉴얼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현재 작물과학원에서 전용 품종 개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총체버의 사료가치를 따지면 TDN 60% 내외로 양질의 조사료"라며 "총체버가 부족한 조사료와 쌀 생산 조정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자료발췌 : 한국농어민신문, 농수축산신문, 축산신문)